

따뜻한 겨울맞이 위한 쿠팡 물류센터 월동 준비 현장

2021. 12. 1.

여느 때보다 이르게 시작된 올 겨울, 모두 월동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직원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쿠팡 물류센터도 겨울나기 준비에 한창입니다. 물류센터 난방기구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에서부터 발열조끼, 온열방석 등 개인 보호구 구매에 이르기까지 쿠팡 물류센터는 그 어느때보다 부산한 겨울 맞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별 맞춤 난방기구로 빈틈없이 따뜻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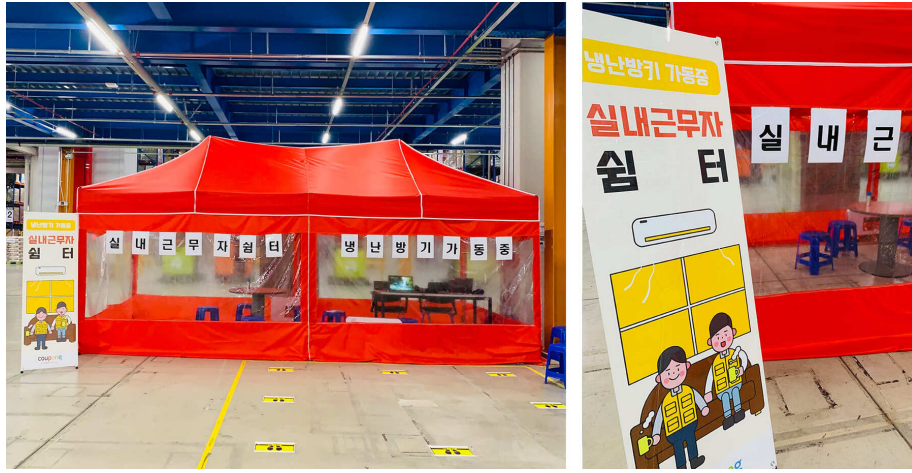
먼저 작업자 밀집도와 온도에 따라 공간별 맞춤 난방 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휴게실과 식당 등 공용공간에는 중앙난방이 운영되고, 그 외 장소별 맞춤형 난방기구들이 설치됐죠. 모두 화재 위험성이 없는 안전한 난방기구들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고정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포장스테이션 등의 작업대에는 천정형 원적외선 난방기가 설치됐습니다. 원하는 온도를 작업자가 직접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온도조절이 가능한 천정형 원적외선 난방기

업무 중에 따뜻하게 쉴 수 있는 현장 휴게실도 곳곳에 설치됐습니다. 안락하게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칸막이나 천막 등으로 새는 열을 잡았고, 내부에 히터를 설치해 따뜻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휴게실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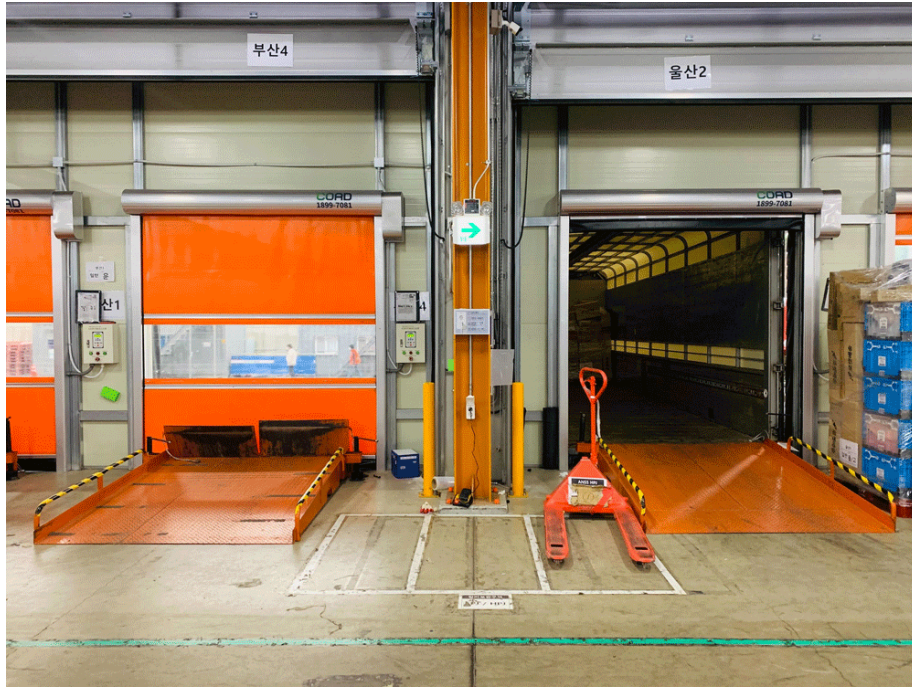
야외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전용 난방시설과 공간도 마련되었습니다. 물류센터를 방문하는 트럭 기사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난방기가 설치된 대기실을 마련했고, 신호수 부스는 냉난방설비가 설치된 밀폐공간으로 전환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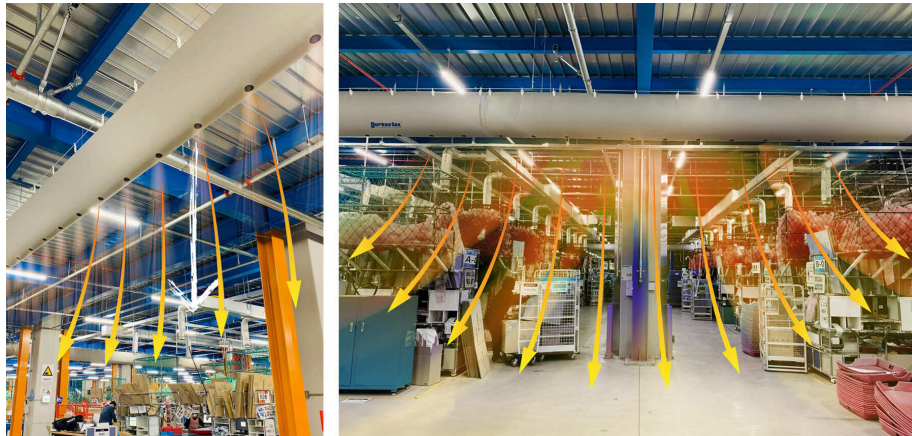
신호수를 위한 밀폐공간과 따뜻한 기사 대기실

새는 열을 잡기 위한 난방 전쟁

층고가 높고 간선 트럭 및 지게차 등의 이동을 위해 외부로 오픈된 공간이 많은 물류센터는 새는 열이 많아 난방이 쉽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류센터를 위해서는 말그대로 새는 열을 잡기 위한 전쟁이 필요합니다. 운영팀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 입출고장의 오픈 공간마다 스피드도어를 설치했습니다. 난방기에서 나오는 따뜻한 공기를 유지하기 위한 에어커튼도 아이디어로 활용됐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막이 커튼 역할을 하며 외부 찬 공기 유입을 차단해주고, 따뜻한 공기는 내부에서 순환되어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입출고장에 설치된 스피드도어



투명한 바람이 뿜어져 나와 찬 공기를 막아주는 에어커튼

넥워머에서 발열 조끼까지, 진화하는 개인 보호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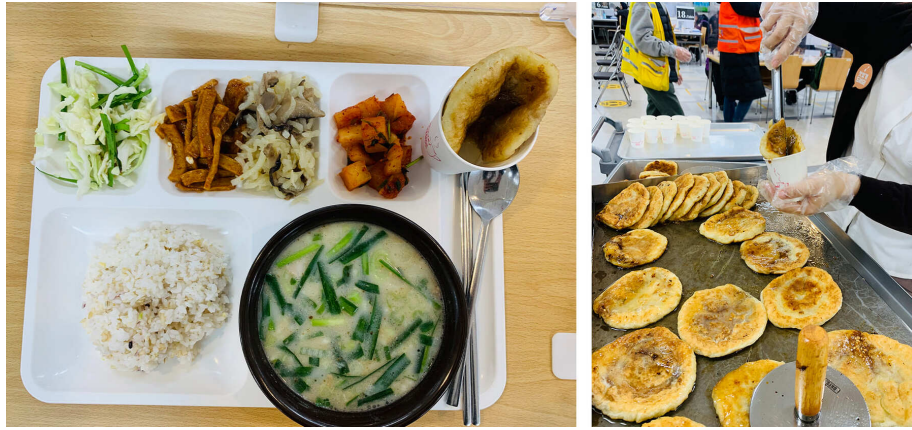
“살균된 보호장비 받아주세요!”

쿠팡은 따뜻한 온기를 높여줄 개인 보호구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내외 근무여부에 따라 방한복, 발열조끼 또는 경량 패딩, 온열방석, 넥 온열기, 귀담개, 방한복면, 핫팩 등 다양한 장비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만 일하는 단기직 직원들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세척 및 살균이 완료된 보호구를 대어받을 수 있으니까요.



“방한복에 넥워머, 발열방석까지, 야외 근무도 문제없어요.”

쿠팡의 구내식당에서는 겨울 동안 따뜻한 코코아나 차를 매일 제공합니다. 호떡이나 어묵 등 겨울철 인기 간식도 매주 제공되고요. 든든하게 먹고 따뜻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겠죠.



“오늘 점심은 든든한 돼지고기밥과 따뜻한 호떡입니다”

무료 보호장비에서부터 전국 물류센터에 난방기 공사까지, 직원 보호를 위한 월동준비에 진심인 쿠팡

쿠팡은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혹한기 대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국 물류센터에서 난방기구와 전기공사를 진행하고 현장휴게소와 기사대기실 등의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폭설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시공까지 전방위로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3백만 개 이상의 핫팩을 비롯해 직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개인구들도 구매를 마치고 직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는 직원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 더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을 보낼 쿠팡 물류센터 직원들을 응원해주세요.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